



보도 일시	2022. 4. 5.(화) 11:30	배포 일시	2022. 4. 5.(화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예산실 연구개발예산과	책임자	과 장 강병중 (044-215-7370)
		담당자	사무관 박혜강 (hkpark57@korea.kr)
	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	책임자	과 장 강준모 (044-215-75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정아 (jjong2306@korea.kr)

- 코로나19 시대,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정책역량 집중 -
<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,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방문 >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월 5일(화) 10시 강원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*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음

*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는 전문 기관(비영리법인)으로 창업보육, R&D지원, 시설·장비 활용, 마케팅 지원사업 등 추진 중

- 이번 방문은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현장 방문하여 신개념 의료기기 (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융복합 의료기기)를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정·행정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음

<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현장방문 개요 >

- ▶ (일시·장소) 4.5(화) 10:00,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
- ▶ (참석자) 기획재정부 제2차관,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,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보건산업진흥원 등
- ▶ (논의사항)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서비스 정책 지원 방향

-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역량과 산·학·연·병·관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토대로 민간이 주도하여 자생적 클러스터로 발전하였으며,
- 의료기기 기업 200여개, 관련 대학 6개, 연구지원센터 4개, 대학병원 2개소, 생명건강 관련 공공기관 5개가 위치하고 있음

□ 먼저, 안 차관은 **고령사회 진입 및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대처하여** **어르신·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돌봄·의료 사각지대 발생, 보건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감염병환자 관리 공백 등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복지·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며,**

○ 이를 위해 **국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·개인 맞춤형 돌봄·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투자**('22년 790억원)를 집중하겠다고 밝힘

❶ **(디지털 헬스케어) IoT(사물인터넷) 돌봄기기***에 기반한 **어르신 돌봄서비스,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, 시스템 구축 중점투자**(‘22년 323억원)

* 호흡·활동·문열림·화재 센서, AI스피커, 열화상카메라, 응급호출기 등

- **어르신 거주지(집, 양로시설 등) 대상 IoT 돌봄기기*** 설치를 지원하여 활동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**응급상황 시 비대면으로 신속 대응**(‘22년 258억원)
- **만성질환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지역사회 헬스케어시스템 서비스 확대***

* (‘21) 160개 보건소 수행(57억원) → (‘22) 180개로 확대(65억원)

❷ **(맞춤형 건강관리)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·연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**과 **빅데이터 활용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실증사업 확대**(‘22년 232억원)

- **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병원,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 저장·제공·활용 가능한 마이 헬스웨이(My Healthway) 플랫폼*** 구축

*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지원 : (‘21) 공공기관 보유정보(50억원) → (‘22) 의료기관 확대(141억원)

- **심장·호흡기 데이터와 AI 기술 등을 활용한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** (CDSS,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) 개발 등 **환자 맞춤형 치료 기반 마련**

*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CDSS 개발사업 : (‘21) 71 → (‘22) 91억원

❸ **(병원 디지털전환) 병원이 보유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**해 **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병원 모델 보급·확산**(‘22년 235억원)

- **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*** 확산(‘22년 35억원)

* '20년(감염병 대응, 3개분야): 원격 중환자실, 스마트 감염관리, 병원내 자원관리

'21년(환자 체감형, 3개분야):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, 스마트 특수병동, 지능형 업무관리

- **‘의료데이터 중심병원’ 컨소시엄을 지정하여 개별 병원에 분절적으로 쌓인 임상 빅데이터를 연계·통합**하고 **신약·의료기기 등 개발 촉진**(‘22년 200억원)

□ 이어서, 안 차관은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둘러보고 지원현황, 성과 점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를 표명함

- 원주시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(건강보험·의료기관)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등을 구축('22.上 예정)하여, 환자 맞춤형 고품질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개발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을 건의
→ 이에 대한 정부지원 상황과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

❶ (헬스케어 서비스)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*을 구성('21.9) 하여 의료기관간 연계된 의료정보(과거 질환이력, 검진정보 등)를 활용한 진료 수행 등 환자별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·시범사업('22.9~12)을 적극지원

* 강원도·원주시, 건보공단과 원주 연세의료원,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등

❷ (실증기반 마련) 고령자·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기기 실증·연구센터와 전시체험관을 설치하여 기업들은 제품 실증 및 서비스 모델 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지역주민에게 의료기기 신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

*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 협업 사업(국토부): ('21) 45억원

❸ (규제 개선)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'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' 발표('21.1월), 식약처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적용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의 대응노력을 소개하고, 향후 현장의 발전 속도에 뒤쳐지지 않을 규제개선노력 지속 의지 표명

- 끝으로, 안 차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의료·돌봄 서비스 분야에 융합·활용 함으로써, ❶ 새로운 팬데믹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대면 환자진단·치료·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, ❷ 디지털 기반 돌봄·의료산업을 우리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, ❸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처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향후 재정적·제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였음